

2005년도 산업보건 정책방향



이 채 필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근로자의 건강은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적자원 보호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입니다.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며, '건강한 일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기업의 보건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유해작업 아웃소싱 확대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근로자 건강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서비스업 비중 증가·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산업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생활습관의 다변화, 작업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증가가 크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재정·기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습니다.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개선시까지

추적관리하는 책임관리, 소음·분진 등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 인력이 집중 기술지원을 하는 중점관리 등 유해인자 특성별 차등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및 일반건강진단 주기 단축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 건강진단의 내실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진단제도가 직업병 발생 유무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슈화되며, 노사갈등의 쟁점이 되는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노사 공동의 예방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업종 사업장 기술지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발병위험 관리 등을 추진하여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업무상질병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3년 하반기 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확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이 증가하는 진폐증을 제외할 경우 '04년 10월 현재 업무상질병 발생률은 전년 동

기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당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뇌심혈관질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골격계질환 증가폭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점으로, '03년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9.4% 증가하였으나, '04년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71% 증가에 그쳐 증가추세가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화학물질 개발 및 유해물질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해인자 관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유해인자 특성별 차등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다량 사용되고 있으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 등 체계적 유해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MSDS 신뢰성 조사 강화 등 화학물질 관련 연구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석면 등 독성이 강한 금지 및 허가물질 불법취급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 불법취급을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약 유해인자 및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직업병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소음이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유해인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음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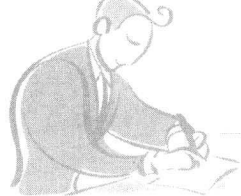
시설 개선비용 지원 등 고소음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산업보건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사업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한층 내실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건강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업현장 이슈로 대두된 작업관련성질환의 예방관리 강화 등 근로자 평생 건강증진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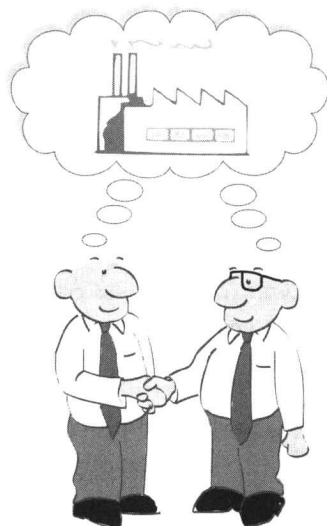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간 실시해온 기술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노사 공동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보수사업장 예방의무 이행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뇌심혈관질환 기초질환 다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체력측정실을 확대 운영하며, 건강증진운동 참여사업장에 보건·운동·영양·심리 등 각 분야별 프로그램 기법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200여년에 걸쳐 달성한 산업화를 30여년 만에 경이적으로 달성하였지만, 그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써 안전보건 불감증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진 레이온 CS₂ 사건, L전자부품 근로자 집단불임



제 언



중발생 사건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른 바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투자보다는 비용개념으로 인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기저하와 노사불신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예방투자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 및 가치 창출의 밑거름이 되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안전보건경영 상태를 포함하는 등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보호문제가 윤리적 차원을 넘어 경영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보완 및 각종 지원사업 내실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관리 주체로서의 노사의 인식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건강한 작업환경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사함임을 명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은 자발적인 건강관리와 관여가 실효성 있는 산업보건사업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예방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산업보건 전문기관 관계자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업장과의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보건 컨설턴트를 매년 일정 인원 이상 지속적으로 양성·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강한 일터'는 노·사·정 그리고, 민간 전문가 모두가 한마음 되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